

民族定着史

# 羅州林氏 (編)

鄭泰先

(郷土史 研究 委員)

## 1. 나주(羅州) 임씨(林氏)의 연원(淵源)

나주 임씨(羅州 林氏)는 고려 충렬왕(忠烈王)때에 대장군을 지낸 임비(林庇)공을 원조(遠祖)로 하고 있다.

대장군 공이 고려의 충렬왕이 아직 세자로 있을 때 원나라와의 화의(和議)를 위해 갔을 때 호종하여 갔다가 원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

마침 임연(林衍) 등이 원종(元宗)을 폐하고, 그의 동생 안경공(安慶公) 창(淸)을 왕으로 옹립했던 일이 일어났다.

이를 알게 된 충렬왕 일행은 원나라로 되돌아가 원나라의 황제 세조

(世祖)의 힘을 빌어 원종이 다시 복위되자 세자로서 귀국하게 되고, 1299년 고려 제25대 충렬왕이 된다.

무인 정권의 말기와 대몽(對蒙)화의 과정의 혼란기에서 끝까지 충렬왕을 시종보좌(侍從輔佐)한 공로로 2등 공신이 되어 토지와 하인과 칠권을 사수(賜受)받게 된다.

벼슬은 대장군 충청도 지휘사 판사 재시사(大將軍 忠淸道 指揮使 判司宰寺事)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공의 9세손 감무공(監務公) 탁(卓)이 해남 감무(海南 監務)를 지낼 때 5백년 고려의 사직이 막을 내리고 이 성계(李成桂)에 의해 1392년 조선이 개국되었다.

공은 충절을 지켜 여러 다른 충의 지사들과 함께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망국의 한을 지닌 채 충절을 지키던 많은 지사, 현사들이 희생되는 과정에서 공은 나주 회진(會津)으로 은거(隱居)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관을 '회진'으로 쓰게 되었고, 회진현이 나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나주 임씨'가 되게 된 것이다.

감무공 이후 소윤공 봉(小尹公鳳), 산원공 시소(散員公始巢), 사적공 석주(寺正公碩柱), 참의공 귀연(參議公貴椽) 등의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벼슬길을 멀리하고 세가(世家)의 풍교(風教)만을 유지하였다.

이 후 감무공 탁의 6세손 우후공 평(虞侯公桴)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병마 이후(兵馬虞侯)에 까지 올랐다.

또한 감무공의 7세손 부윤공 봉(府尹公鵬:號 歸來亭)이 문과에 급제하여 옥서(玉署), 죄승지 등 여러 벼슬을 거쳐 계림 부윤(鷄林府尹),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의 아들 장수공 익(長水公益), 정자공 복(正字公復), 절도공 진(節度公晉), 첨지공 몽(僉知公蒙) 네 형제가 현달(顯達)함으로써 가세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밖에 감무공의 둘째 손자인 유소(有巢)공 대에서 비롯되는 도정공파

(都正公派)가 있는가 하면, 감무공의 5세손 귀량(貴樑)공을 파종조로 하는 진사공파 7세손 학(鶴)공을 파종으로 하는 생원공파(生員公派), 안(鵝)공에서 동지공파(同知公派)가 파생되어 대별하여 8개 파가 나오게 되었다.

부윤공 봉은 기묘사화 때 명신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를 위해 상소를 올렸던 태학(太學)의 주동자였으며, 공의 맏아들 장수공 익(益:字 希謙)은 장수 현감(縣監)을 지냈고, 둘째 정자공 복(復, 字 希仁)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 직에 있을 때 간신배의 모략 증상으로 삭주(朔州)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나 향리에 들어가 운둔하였다.

이 분이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몰려드는 왜군을 겨규하여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주력함대인 '거북선을 설계한 분'으로 당시 대석학이였음의 의병장이었던 강항(姜沆)의 <수은집(睡隱集)>에 의해 밝혀져 더욱 유명하다.

셋째 절도공 진(晉:字 希善)은 오도절도사(五道節度使)와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이르러 가선대부(嘉線大夫)에 가자되었으나 청렴하기로 소문나 특히 왕께서 청절집(淸節集) 두 권을 하사할 정도였다.

특히할 것은 절도공 진의 맏아들인 백호공 제(白湖公悌)는 옥당에 조정

량(玉堂禮曹正郎)에 이르렀으나 드물게도 명나라에 지나치게 치우하는 사대주의를 배격하는 충분강개(忠憤慷慨)한 분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탈속한 문장과 호연한 기상을 드날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셋째 아들 습정공 환(習靜公 權)은 임진왜란을 맞아 분연히 창의하여 공을 세워 소의장군(昭義將軍)이란 칭호를 받고 좌승지와 2등 녹권(二等 錄券)이 증직되었다.

또한 정자공 복의 맏아들인 감사공 서(愾:號 石村)는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황해감사(黃海監司)에 이르렀다.

감사공 서의 아들 승지공 련(堧:號 閒好) 또한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우승지에 이르렀고, 감사공의 둘째 아들 충익공 담(忠翼公 담)은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右相)으로 있으면서 병자호란의 뒷일을 수습하기 위해 접반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가산(嘉山)에서 생을 마치게 되니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瑞瑞瑞

정자공 복의 손자(堧의 子)인 상주공 타(尙州公 瑞)는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원종(靖社原從) 2등 공신에 녹권(錄券) 1 등에 추록되었고, 관직은 상주목사(尙州牧使)에 이르러 후에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유호공 협의 둘째 아들 돌리공 한

(東里公 埴)은 도학과 문장으로 당대의 백미(白眉)로 칭송을 받았고, 습정공 환의 아들인 월창공 계(月窓公 洎)는 인조반정의 공신이며, 이괄(李适)의 난과 병자 호란을 당해서는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

임문(林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특히 부윤공 봉의 후손에서 현달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

중요한 인물로 부윤공의 6세손 창계공 영(滄溪公 泳)은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 대사헌(大司憲), 부제학(副提學)에 이르고, 경사(經史)에 정통하였고, 성리학에 밝아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편 대 석학으로 나주 창계서원(滄溪書院)과 함평(咸平) 수산사(水山祠)에 제향되었다.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벼슬에 나아가 호당(湖堂)에 올랐고, 남평현감 등을 역임한 교리공 상덕(校理公 象德:鵬의 7세손)이 있는가 하면, 부윤공의 8세손 정간공 한호(貞簡公 漢浩)는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 대사헌, 우의정에 올랐고, 판중추부사에 전임되어 서얼(庶孽)의 등용을 주창하여 인재 등용의 고질적인 병폐를 혁파했던 분으로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공의 9세손 간헌공 시철(簡憲公 訖喆)은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

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간헌(簡憲)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경진(景鎭),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동진(東鎭), 참판 희진(喜鎭), 옥당, 참판을 지낸 한진(翰鎭), 옥당, 대사간 처진(處鎭) 등이 다 그분의 자손들이다.

11세손으로 예조판서를 지낸 효정공 영수(孝靖公 永洙),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노원보략(瀟源譜略)>의 재발간에 참여했고, 의주부윤, 강원, 함경도 관찰사, 공조판서에 올랐으며, 기로소(耆老所)에 드는 영광을 얻은 효정공 한수(孝靖公 翰洙) 등이 다같이 임씨 문중을 떠받들던 인재들이었다.

판서공 긍수(肯洙:諡號 文憲)는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전라감사,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한말에 이르러 충민공 최수(忠愍公 最洙)는 벼슬이 시종(侍從)이었으나 천인 공노할 왜인들의 국모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중외에 격문을 띄어 동지들을 규합하여 역적의 괴수와 친일파를 소탕하고, 왜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조정을 혁신하려는 거사를 꾀하다 간당의 밀고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이렇듯이 나주 임씨는 부윤공 붕이 후 11, 12대에 이르기까지 문장과 도학은 물론 조정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환로(宦路)에 있어서 문과 급제자가 53인에 달하며, 시호를 받은 이가 7위, 문행(文行)으로 서원, 사우(祠宇)에 배향된 분이 7위에 이른다.

근세에 들어와서 나라의 운명이 급기야 풍전 등화(風前燈火)와도 같았을 때 임문은 다시 한 번 그 기계를 발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분으로 의사(義士) 용상(龍相)이 있다.

공은 치욕스러운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왜적에 대항 결연히 창의하여 보현산(普賢山)을 중심으로 의병을 규합 지휘하였고, 그 후 광복단체인 대동단을 조직 대구 지역책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현재 시립 공원에 그분의 동상이 세워졌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에 대항해 조직된 비밀 결사인 '조선 어학 사건(朝鮮 語學 事件)'으로 옥고를 치른 계산공 혁규(溪山公 燦圭)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할 때인 1930년대 중반에 자주 정신의 확립으로 잃었던 주권을 찾기 위해 '회진 개혁 청년회'를 결사하여 국민 계몽 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전원 피체, 갖은 고문과 옥고로희생당하게 된 주동자들도 임종술(林鍾述) 등 대부분이 임문의 청년들이었다.

1945년 광복 후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외교사의 주역이며, 상진인 소죽공 병직(小竹公 炳稷)은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 교포대회 서기장으로서 3·1운동 축진회를 조직 활동하였고, 구미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함께 독립 운동을 주도했다.

공은 제2대 외무장관을 비롯해 각국 대사를 역임하면서 건국 초기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등 국익과 국위 선양에 일생을 바쳐 임문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게 된 분이다.

돌이켜보면 임문은 일신의 영달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말 선초의 혼란기에서 다윗로는 최고의 가치관이었던 충의의 절개를 지켜 두문동에 들어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할 위기도 있었고, 회진으로 낙향한 그 이후에도 1백여 년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기개 높은 문중이다.

이렇게 임문의 혈통 속에는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청고 근졸(淸高 謹拙)의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령산맥(蘆嶺山脈)이 서남으로 줄기차게 달리다가 신걸사(信傑山)에 이

르러 우뚝 멈추고, 영산강(榮山江) 쪽으로 한발짝 내디딘 곳이 임씨 문중의 영원한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회진'이다.

신걸의 지맥이 뺨어내려 동소봉(洞蕭峰:중수봉)을 주산(主山:玄武)으로 하고, 서쪽으로 기운차게 백산(柏山:右白虎)이 솟아있고, 동남쪽으로 오지게 휘어감는 중수봉의 산자락이 좌청룡(左靑龍)으로 되며, 멀리 월출산이 주작(朱雀)을 이루는 곳이다.

〈기오정기(寄傲亭記)〉에 이르기를 “신걸산은 중천에 솟았는데 주룡(走龍)이 6, 7리를 뺨어나와 바로 금강(영산강)에 임했다.

금강의 흐름은 동쪽의 영산강으로부터 서쪽의 해중으로 통한다.

조수(潮水)가 출입하고, 상선(商船)과 어정(漁艇)이 끊임없이 왕래하니 ‘회진(會津)’이란 이름이 이리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회진의 산수는 금성(錦城)이 진(鎭)이 되고, 금강은 대(帶)가 되니 금성산맥을 따라서 꿈틀거리며 기복(起伏)하면서 금강에 이르러 신걸산이 되었다.

금강의 원류는 노령서석(蘆嶺瑞石)의 간소(間沼)에서 내려와 영산(榮山)의 앞을 들러서 회진에 모이니 상선과 고깃배가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산은 둘러싸고 물은 굽이쳐 흐르

고 그 사이로 들이 열렸으니 평탄하고 기름져서 밭이랑이 수(繡)를 놓았다.

촌락에서는 누에 치고, 삼베 짜고, 닭 기르고, 개 짓으니 성세(盛世)에 낙토(樂土)의 풍(風)이 있다.”고 하였다.

동쪽은 나주시, 남쪽은 영산면과 왕곡면(旺谷面), 서북쪽은 문평면(文平面)과 접하고 있다.

이렇듯 회진은 산과 물이 어울려 풍광명미(風光明媚)하여 수은 강항(睡隱 姜沆)은 그의 문집에서 “승경(勝景)이 호에서 제일”이라 하였다.

## 2. 지명(地名)의 역사(歷史)

신라는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국세가 쇠신해짐에 따라서 군웅이 발호하여 세상이 자못 어지러웠다.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견훤(甄萱)은 회진에다가 죽군성(竹軍城:土城)을 쌓아 본거지로 삼고, 그 세력을 백제의 고토를 중심으로 처음 떨치기 시작한 곳이다.

죽군성은 지금의 회진촌의 주위에 있는 토성인데 그 축성 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삼한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침내 신라는 3분 천하가 되어 이 땅의 북반을 지배하게 된 궁예(弓裔)의 장수였던 왕건(王建)이 궁예를 무

너 뜨리고 고려를 건국, 후백제의 견훤을 격파한 마지막 고전장이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왕건이 천하를 통일하고 회진은 나주목(羅州牧)에 속하게 되었으나 백제 때에는 두고승(豆勝縣)이라 하였다가 통일 신라 시대에 비로소 회진현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회진촌은 그 현읍(縣邑)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 때에도 회진은 나주에 속했고, 고려 지리지(高麗地理誌)에 의하면 고려조에 와서는 나주를 금성(錦城)이라 부렀던 때도 있었다.

조선조에 와서는 고려의 구례에 준하여 나주목에 속하게 되었고, 시랑면(侍郎面)의 한 촌락이 되고 만다.

그러다가 한말의 혼란기를 거쳐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이후 1914년에는 시랑, 수다(水多), 죽포(竹浦)의 3개 면을 통합하여 다시면(多待面)이 되고, 행정 구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회진은 신평리(新楓里)라 부르다가 1997년에 회진리(會津里)라하여 옛 지명을 회복하였다.

하나 알아둘 것은 문암(文岩), 성치(城峙), 관음사골, 탑동(塔洞), 동촌(東村), 풍호촌(楓湖村), 누저동(樓底洞), 사직동(社稷洞) 백하동(柏下洞), 강정동(江亭洞), 새금, 낭동(朗洞) 등 12촌을 통틀어 회진이라 한다.

### 3. 회진(會津)의 인맥(人脈)과 특성(特性)

회진은 본래 임씨(林氏), 양씨(梁氏), 신씨(申氏), 조씨(曹氏), 서씨(徐氏)가 주로 살았다 한다(東國輿地勝覽).

그러나 지금은 나주 임씨가 대부분이며, 반남 박씨(潘南 朴氏)가 동촌에 세거하고 있을 뿐이다.

회진이 나주 임씨의 성향(姓鄉)이 된 것은 원조(遠祖)인 대장군공 비(庇)의 9세손 감무공 탁이 여말 선초(麗末 鮮初) 개성으로부터 이곳으로 은둔(隱遁)하면서 시작되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감무공 탁은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不事 二君)의 절의를 지켜 두문동으로 들어간 72현 중의 한 사람으로 회진으로 와서 숨어 살게 되었다.

공이 처음 이곳에 누저동(樓底洞)터를 잡을 때 두문동으로부터 함께 오게 된 72현 중의 한 분이었던 이모(李某)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모는 학행 뿐 아니라 풍수 지리에 능하여 누저동 터와 중수봉 산 아래의 터 두 곳을 잡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누저동 터는 자손이 번성하여 ‘난훈계복(蘭薰桂馥)’할 것이라 하였고, 중수봉 아래터

는 누만석의 재물을 이룰 것이다.”라 하니 감무공 탁은 누저동 터를 택함으로써 6백년 동안 한 집터에서 지금까지 24대를 끊이지 않고 종자종손(宗子 宗孫)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주 임씨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풍수 지리설에서는 이 종가 터를 ‘갈마 음수(喝馬 飲水)’터라 한다.

감무공 탁 이후 4대까지는 공의 유훈에 따라 조선조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생업(農事)에만 전념하면서 절의를 지켜왔으나 가세는 당연히 한미(寒微)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6세손 우후공 평에 이르러 무과에 급제 벼마 이후(兵馬 虞侯)가 됨으로써 비로소 벼슬길의 문을 열게 되어 나주 임씨의 현달(顯達)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후공의 아드님인 부윤공 봉(鵬)이 문과에 급제하면서부터 청환(淸宦), 도학(道學), 문장(文章)이대를 이으면서 배출되어 호남 거족(湖南 巨族)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한 것은 쇠퇴해가는 가운을 중흥시킬 뜻을 세운 우후공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아드님인 부윤공이 가묘(家廟)에 친필로 부친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위패에 부조(不祧)하라는 ‘장묘우문(藏廟 宇文)’을 지었다.

이것이 자손에게 유훈으로 남겨져 지금까지 430여 년 간 대대로 부조사당(不祧祠堂)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점이다.

이 사당에 보존하고 있는 ‘장묘우문’의 뜻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후손들은 지금도 효행은 물론이고, 화목과 우애가 돈독하기로 이름이 높은 문중이다.

이로부터 임씨의 후손들 중에 걸출한 인물이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회진이 반향(班鄉)으로서 이름이 난 것은 앞에서 말한 나주 임씨와 국중 호족(國中 豪族)의 하나인 반남 박씨(潘南 朴氏)가 동촌에 세거하면서 더욱 빛났던 것이다.

반남 박씨의 중시조인 고려 호장공(戶長公: 諱 應洙)의 15세손 증 찬성공 세해(贈 贊成公: 世楷)가 처음 이주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세해는 나주 임선생 동리공(東里公: 諱 璋)택으로 취처하였고, 시조묘(나주군 반남면 봉현)에서 가까운 뿐더러 풍광이 아름다운 동촌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것이다.

반남 박씨 문중의 인맥을 살펴 보면 문과 급제자 215명, 왕비 2명, 부마 5명, 상신 7명, 대제학 2명, 호당 2명, 청백리 1명, 공신 6명, 장신 3명 뿐만 아니라 문묘에 배향된 분

분이 1명이 있어 박씨 문중에서도 반남파가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거지를 옮기게 된 세계(世楷)의 후손들도 현달의 맥을 이어가게 되니 회진은 역시 주옥같은 인맥의 고향이 아닐 수 없다.

회진은 특히 나주 임씨와 떼어놓을 수 없는 고장이다.

한말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을사 보호 조약(乙巳 保護 條約)이 체결되자 나주 임씨 문중에서는 척왜구국(斥倭 救國)의 의병으로 여러 사람이 투신하여 투옥되고 피살되었다.

그 가운데 임종익(林鍾翊: 投獄), 임종기(林鍾基: 投獄), 임종철(林鍾轍: 投獄), 임종풍(林鍾豐: 銃殺), 임덕규(林德圭: 銃殺), 임중규(林中圭: 投獄) 등과 임양상(林良相), 임규하(林圭夏) 등이 희생당하는 구국의 혈혼이 빛나는 고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나주 임씨 문중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회진에서는 국권회복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

1934년 3월 회진 개혁 청년회 사건(會津 改革 青年會 事件)을 조직 자주 정신의 확립, 봉건 인습의 타파, 문명 퇴치, 체위 향상 등의 강령을 내세워 야학을 실시하고 웅변, 토론회를 열고 연극반을 구성, 공연과 강연회 등을 열어 국민 계몽에 앞장



서기도 했다.

결국 일경에 의해 전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오랜 기간 동안 옥고  
를 치루어야 했다.

이 사건의 주도자 및 회원은 대부  
분 나주 임씨 문중의 젊은이 들이었  
다.

주도자로는 임종승(林鍾述), 임종  
선(林鍾璿), 임은택(林垠澤), 임흥채  
(林興采), 임중대(林鍾大), 임경택  
(林敬澤), 임유택(林有澤), 임중국  
(林鍾國), 임중태(林鍾太), 임광택  
(林光澤), 임우택(林禹澤), 임준택  
(林俊澤), 임병률(林炳律), 임호규  
(林浩圭), 임원택(林元澤), 임윤택  
(林潤澤), 박훈서(朴勛緒) 등이며,  
후원자는 임종혁(林鍾赫), 임용택(林  
榕澤), 임희택(林禧澤) 등이 활약했  
던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및 매일신문에서는  
“봉건적 부락에 신조직”이라는 제하로  
논평, 수차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 4. 회진(會津)의 풍광(風光)과 사적(史蹟)

회진은 풍광이 명미(明媚)하고, 산  
수가 수려하여 선비가 한아자적(閒雅  
自適)한 사적이 많으니 본래 선비는  
시문과 술과 벗이 갖추어짐으로써 풍  
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다고

하겠다.

회진의 풍류를 말할 때 ‘금강(錦江)  
11인계(人契)’를 빼놓을 수가 없다.

동국 여지 승람(東國輿地勝覽)에  
서 “홍치(弘治) 중에 사림 임참의 봉  
(林參議 鵬) 외 모모 11인이 다 문  
장가로서 상허(相許)하고 시주(詩酒)  
로 벗을 삼아 매양 가절이면 금강에서  
유상(遊賞)하기를 난정(蘭亭)의 고사  
와 같이 하였으니 당시의 풍류들이 시  
선같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모임을 ‘금강 11인계’라 이름하  
고 박육봉 우(朴六峰 祐)가 기록하고  
나한림 창(羅翰林 昶)이 시를 짓고  
호사(好事)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려 ‘금강 계획도(錦江 契會圖)’라  
하였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  
임을 얼마나 흠양(欽仰)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 그림은 그의 자손이 간직하다가  
그림과 기록이 함께 중유재란에 불타  
버리고 남은 것은 11인의 성명과 시  
뿐이다.

그분들의 성명은 임참의 봉(林參議  
鵬: 羅州人), 정생언 문손(鄭生員 文  
孫: 河東人), 김생원 식(金生員 軾: 光  
山人), 김공 두(金公 頭: 棠岳人), 정  
공 호(鄭公 虎: 錦城人), 진공 이손  
(陳公 二孫: 驪陽人), 진공 세공(陳公  
世恭: 驪陽人), 김공 안복(金公 安福:  
金海人), 진공 삼손(陳公 三孫: 驪陽  
人), 김우후 구(金虞侯: 白: 棠岳人),

나사에 일손(羅司藝 逸孫:羅州人) 등 당대의 걸출한 인물들이다.

이처럼 회진은 '호우풍류(湖右風流)의 남상(濫觴 嘯矢)'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류가 비단 강상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강과 산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는 의례히 정자가 있게 마련이었다.

정자는 시문으로 교환(交驩)하는 선비들의 휴식처였다.

나주에는 '12정' 혹은 '금강 8정' 등의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이름난 정자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한다.

지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영모정(永慕亭:羅州 林氏, 會津), 창랑정(滄浪亭:羅州 林氏, 伽倻山下), 납상정(納爽亭:坡州 廉氏, 松月里), 기오정(寄傲亭:潘南 朴氏, 會津), 소요정(逍遙亭:咸豐 李氏, 多侍 竹山), 석관정(石串亭:咸豐 李氏, 多侍 동백), 장춘정(藏春亭:高興 柳氏, 多侍 하동), 벽류정(碧流亭:光山 金氏, 細枝 碧流亭), 평원정(平遠亭:忠州 朴氏, 왕곡 송죽), 금사정(錦社亭:錦江 11人契, 왕곡 송죽), 쌍계정(雙溪亭:羅州 鄭氏, 老安 김안동), 식영정(息營亭:羅州 林氏, 務安 梨山), 영팔정(咏八亭:文化 柳氏, 靈岩郡 新北面 모산), 풍영정(豐榮亭:光山 金氏, 光山 極樂江邊)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여러 정자 중에서 영모정은 부윤공 봉의 아들들이 선친의 거려지(居廬地)를 기념하기 위하여 1566년(明宗 11年) 정자를 짓고 '영모정'이라 명명하였다.

정자공 복(正字公 復)이 남긴 시에는 서친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있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안현(安瑗)도 시를 지어 정자를 세운 뜻을 기린 것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정자마다 세운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연마다 고인들의 아름다운 정서가 깊게 배어있어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다사롭게 한다.

또한 정자를 세운 곳마다 독특한 풍광이 있어 인위적인 구조물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나주별의 운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고인들의 안목이 뛰어났음이 아니었을까!

회진의 사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역시 나주 임씨 가묘(家廟)인 불조묘(不祧廟), 감무공(監務公:林卓)의 사적비, 귀래정공(歸來亭公: 林鵬)의 우허비, 백호공(白湖公:林悌)의 기념비 및 기념회관(지방 문화재), 석촌공(石村公:林愔)의 신도비, 창계서원(滄溪書院:林泳의 書院舊基와 신도비), 청하공(聽荷公:林地)의 영당(影堂)구기, 매계공(梅溪公:林淨)의 영당이 있고, 열부(烈婦) 제주 양씨의 정려(旌閭), 창랑정(滄浪亭:林柁)의

죽오당(竹梧堂) 구기가 있다.

또한 사찰은 신결산에 복암사(伏岩寺)가 있는데 신라 때에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백호 임제가 이곳에서 수학하면서 당호를 '석림정사(石林精舍)'라 하였고, 그 현판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고려말 장도전(鄭道傳)이 이곳 회진으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이 바로 소재동(消災洞)으로서 지금의 백동이다.

회진성(竹軍城) 또한 지방 문화재(제 7호)로 유명하다.

회진의 풍물 가운데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나주 8진미(珍味)라는 것이 있다.

회진 복암(伏岩)골의 열무, 새울의 배추, 동문 안의 미나리, 흑용동의 두부, 전왕의 생강, 개간들의 콩잎, 사매기의 녹두묵이 그것들이다.

이 밖에도 영산강의 생선은 해수와 담수가 교류하는 기수 지역(汽水地域)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옛부터 금강(錦江) 8진미가 있어, 송어(秀魚), 뱀어(兵魚), 웅어(葦魚), 장어(長魚), 복(河豚), 토하(土蝦) 잉어(鯉魚), 모처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송어알(魚卵)은 궁중에 진상품으로 유명한 토산물의 하나이다.

현재까지도 구진포 장어구이는 유

명하나 영산강의 하구를 막아 강물은 오염되고 어종도 변질되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題永慕亭(제영모정)

(1)

先慕先親處:선친을 길이 사모하는 곳.

流傳指一臺:이 한 정자 유전(流傳) 하는구나.

堂存依昔賞:정자를 찾아 옛날을 생각하며.

思貌幾時廻:풍모(風貌)를 그리워함이 몇 번이었다.

錫類綿宗望:면면이 이어갈 줄통(宗統), 간곡하신 바램은.

紹聲篤後來:받드는정성 후손들이 돈독하다.

腹膺吾祖意:삼가 우리 아버지 뜻 가슴에 새기노라.

悲痛亦難裁:비통한 마음 또한 가누기 어렵구나.

(2)

孝子開堂處:아들이 정자 지은 곳은.

先人舊日台:그의 선친께서 옛날 지으셨던 누대자리로다.

登臨非好賞:정자에 올라 이 좋은 풍경 즐기려 함이 아니라.

思慕不知廻:다시 못오실 님 애타게 그리워 함이로세.

雲絕太行望:구름이 기이하게 떠가는 하늘 바라보노라니.

風從庭樹來:바람은 조용히 정수(庭樹)에 불어오네.

終身無限意:그 몸 다하도록 영모하리라 한 없는 심정.

衰境定難裁:늙은 나로서도 헤아리기 어려우네